

월/요/광/장

하동만



최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그동안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급기시해 오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생명공학의 꽃으로 불려져 온 줄기세포 연구가 미국에서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4년전 세계 최초의 배아줄기세포 탄생을 세계학계에 보고하면서 생명공학시대 선두주자로서의 꿈이 영급했으나, 불과 1년여만에 그 연구가 조작되었다는 끔찍한 낙인애를 짊어지야만 했다.

연 학계의 결론에 접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일을”이라는 자학적인 소수에 줄기세포연구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줄기세포기술개발이 갖는 너무나 큰 경제적 중요성과 질

광주·전남도 줄기세포연구 참여를

병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인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황박사의 연구가 줄기세포기술개발에 일말의 단초라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 노후유를 계속·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되어야 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동물복제기술은 사장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전문가들이 지난 4년간을 허비하지 않고 꾸준한 연구와 실험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으로써 가장 유망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국민, 우리지역민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손기술이 줄기세포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줄기세포 등 관련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들 동물복제나 줄기세포 연구팀을 초청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자원 활용과 함께 생명공학을 발전시켜나간다면 미래 우리지역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에 신기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는 세계최대 규모의 ‘개 사과리’를 조성하여 그 중앙에 세계 애견가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의 동물복제 전문팀이 운영되는 애견복제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진도는 세계 제1의 동물복제의 메카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은 이곳을 찾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첨단기술을 결합시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학계·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투자유치의 핵심은 인적자원, 즉 우리가 해당분야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줄기세포연구에 나서게 됨으로써 중국, 일본, 영국 등 유럽 여러 국가들도 줄기세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분야에서 선두에 섰다가 뒤로 물러선 경험이 있다. 만약 지난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시행착오나 결점이 적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줄기세포 기술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황우석박사님의 예에서 보듯이 탁월한 리더의 지도력과 연구진의 자기희생적 처절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 연구에 수많은 연구팀이 생겨나고 또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에서도 많은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고 기존의 연구팀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3파전된 ‘U대회’, 광주유치 성공하려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경쟁이 광주를 비롯한 대만 타이베이, 캐나다 에드먼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본부가 U대회 유치도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들 3개 도시가 최종적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오는 5월23일 개최지 결정까지 약 2개월 간 유치전이 본격화 된 것이다.

이번 대회 유치전은 광주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치밀하게 전략을 짰다면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우선 애초 8개 도시가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3개 도시가 참여해 경쟁률이 크게 줄었다. 게다가 타이베이의 경우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없어 사실상 광주와 에드먼턴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고무된 광주시는 높은 인지도와 네트워크, 완비된 경기장 시설 등을 내

세우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쟁 도시들도 인프라나 인지도 면에서 뛰어난 만큼 의욕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해 ‘2013 U대회유치’에 고배를 마신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가. 이를 위해선 지난해 유치전의 실패 원인이었던 인프라 부족과 홍보전략 등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2015 U대회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더불어 광주의 미래를 바꿀 또 하나의 프로젝트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국도시브랜드 가치평가에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차지한 광주로서는 U대회가 ‘글로벌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88 서울을 필두’를 통해 서울이 국제도시로 탈바꿈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금부터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맨다는 각오로 유치전에 돌입해야 한다. 광주 시민들도 경쟁도시를 능가하는 유치 열기를 보여줘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무조건 정상화해야

북한이 개성공단의 임·출경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북한은 한국군과 미군의 연례적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를 ‘북침용’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지난 9일에 이어 13일부터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북 육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통행 차단은 한반도의 평화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불모로 삼았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제정된 북한 국내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에서 ▲(납축)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장 ▲투자자의 재산 국유화 배제 등을 명문화했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활동 및 재산 보장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행 차단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합당한 행위로,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불이익만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과 미사일 논란이 불고 있는 ‘장거리 발사체’의 발사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통해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키는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무모한 행위들은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불모로 삼았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은 정경브리 원칙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며,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통행보장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무조건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히 상식 밖의 도발적 행동은 더 큰 화(禍)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하되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노영대.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말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법을 계승하였다. 일본법은 독일법 즉, 대륙법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판사나 검사로 바로 임관되었고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여 왔다. 법과대학교수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았다.

기고 한병선. 모두 명문대에 가고자한다. 명문대 입학에 위해 재수(再修)는 기본이다. 삼수(三修), 사수(四修)도 불사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명문대에 갈 수 있다면 성공이다. 편입학도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좀 더 나은 대학으로 가기위한 노력이다. 학문의 심화, 학업영역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별 상관없다.

로스쿨제도 원안대로 시행하자. 나라의 해방 후 미국의 영향 아래 정치, 경제, 문화 모두가 미국을 따라 가게 되니 법제도와 사회 현실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됐다. 미국 영화를 수 없이 본 국민들은 로스쿨과 배심원제도로 상징되는 미국사법제도가 좋은 것이라고 믿고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여 왔고 마침내 그들이 승리하였다.

학벌주의에 대한 또 다른 해법. 다 줄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배경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훈장과 같은 배경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훈장과 같은 배경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훈장과 같은 배경은 어디에서나 통한다.

無等鼓.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생선발 등에 정통한 대입전형 전문가를 ‘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r)’이라 한다. 이들은 성적 위주였던 과거 학생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과 창의력, 특기,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을 뽑는다.

인터넷 중고차 판매상 ‘미끼 상품’ 필수 사기 주의. 중고차를 사기 위해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에 가봤더니 필요로 하는 사양의 트럭이 다른 매물보다 값이 300만원 정도 저렴했다. 서둘러 전화를 해서 계약금을 보내겠다고 하자 담당자는 계약금은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할 테니까 일단 매매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도시민에 ‘낙농 체험’ 제공하는 ‘밀크 스쿨’ 열었으면.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주는 우유를 기피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과자류나 초콜릿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입맛 탓이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으나 방학 때마다 우유급식 우수학교를 지정해 해당 학교 아이들을 초청, 현장학습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滄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